



제59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가 2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초등부 발레 창작 군무 최고상을 수상한 송원초등학교의 '개미와 베짚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예술 꿈나무' 열정의 무대...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

내일 오후 1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대극장 시상식·'예술제 선배' 축하 공연... 무료 관람

내년이면 꼭 60살이 되는 호남예술제는 지역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이다. 올해 역시 2개월 간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연이 펼쳐졌고,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참가자들에게는 최고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59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가 28일 오후 1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무용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광주한빛무용학원, 광주송원초, 상지무용학원, 나주초등학교 군무팀과 류인웅(일동중 2년), 김노연(조봉초 6년), 이가은(수피아여고 3년), 김은우(광주예고 3년) 등이 다양한 춤사위를 선보

인다.

또 박지수(전남예고 3년)양이 가야금 산조를 들려주며 송원초등학교는 신나는 삼도사물놀이 무대에 올린다.

성악 부문에서는 이시욱(살레시오초 4년), 김해민(문흥중앙초 5년), 김사랑(용두중 2년), 이산아(전남예고 2년), 류수인(광주예고 3년)이 무대에 오르며 바이올린의 형준서(금천초 6년), 비올라의 최지우(서진여고 1년), 첼로의 설유승(광주예고 3년), 클라리넷의 조금성(전주예중 3년), 플루트의 유지후(광주삼육초 5년), 선포정(광주예고 3년)의 공연도 만날 수 있다.

피아노 부문에서는 윤나경(경양초 2년), 김하수



양새미씨 (선창초 4년), 서민수(대봉초 6년), 홍수빈(목포하당중 2년), 김준형(전주예고 2년)이 공연한다.

서정민씨 호남예술제 출신 선배들의 축하 공연도 마련돼 있다.

초·중·고 시절 3차례나 최고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전남대 겸임교수)씨는 바흐의 '파르티타 3번 중 가보테'와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0번'을 들려준다.

한양대학교 음악학과에 재학중인 플루티스트 서정민씨는 54회, 57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 2번' 4악장을 선사한다.

화려한 무용 공연도 마련돼 있다. 박준희 교수가 안무와 지도를 맡은 조선대 무용과생들이 '꽃잎이 날다'를 선보인다.

또 전국국악대제전에서 명장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리꾼 김향순(전남도립국악단 판소리 수석)씨가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주며 홍송화씨는 '교방 살পুর이'를 공연한다.

회관 로비에서는 정운설(광주 송원초 1년)양 등 미술과 작문, 칸 만화 부문 최고상 수상작도 진행되며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장 없는 약정서 무효"

천경자 화백 측, 갤러리현대와 갈등

최근 대한민국예술원에 회원 탈퇴서를 내 논란을 빚은 고홍 출신 천경자(90·사진) 화백 측이 이번에 천 화백의 작품을 토대로 제작된 아트상품의 판매를 놓고 갤러리현대와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천 화백 측과 갤러리현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천 화백의 장녀 이혜선(70)씨는 최근 서울시를 통해 갤러리현대에 아트포스터 판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천 화백이 지난 1998년 서울시에 작품 93점과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기증했기 때문에 현재 천 화백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시에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명화를 만나다-한국 근현대회화 100선'에서 판매된 아트포스터. 여기에 '갈레리나' 등 천 화백의 작품 2점이 포함된 것이다.

해당 업체는 갤러리현대에서 포스터를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천 화백의 저작권을 보유한 서울시가 갤러리현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갤러리현대 측은 "1995년 맺은 약정서에 따라 당시 제작했다가 남은 상품을 이번에 판 것"이라는 입장이다.

천 화백 측은 "약정서에 날짜가 없고 천 화백의 도장도 없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정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 에너지 발산

제17회 청소년 열린음악회

내일 유·스퀘어 광장 무대

청소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8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 광장 특설무대에서 '제17회 청소년 열린음악회'를 연다.

문제해씨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리틀싸이'로 유명한 황민우군을 비롯해 아이돌 가수 '플레이 보이즈', 제1회 G-POP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댄스그룹 'B5S-CREW', 제1회 G-POP페스티벌 금상 수상팀인 그룹사운드 '여우별'이 출연한다.

또 청소년트롯신인가요제 수상자 김희재, 고수연, 위명선씨의 무대도 준비돼 있다.

문의 062-352-1080. /김경민기자 kki@



'리틀싸이' 황민우군



그룹 '여우별'

표현기법 달라도 부드러움 닮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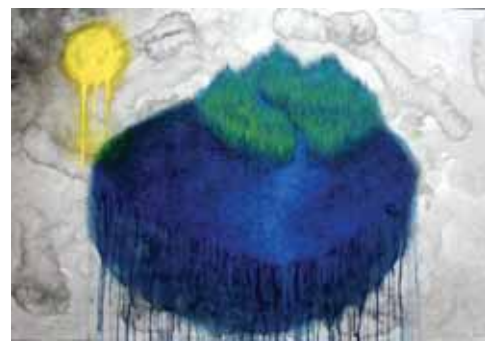
롯데갤러리, 윤세영·이선희 전

한국화를 전공한 지역의 젊은 여성작가 두 명의 감성적 사유가 돋보이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 롯데갤러리는 7월3일까지 윤세영·이선희씨를 초대해 2인전 '잔향'(殘香)을 연다.

작가들의 다양한 감수성이 농밀한 화면으로 가시화된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종이에 점도를 바르고 그 위에 색을 입히는 윤씨의 작품과 마치 위에 분체를 이용해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이씨의 작품에서는 한국화의 매력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들은 재료와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부드러운 색조와 적절한 여백을 사용하는 기법으로 주



윤세영 작 '달을 닮은 그리움'

제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윤씨 작품에서는 메시지에 깊이 감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푸른 색조의 물결이 유난히 눈에 띈다. 푸른색은 물결이자 바람으로 다가오며 작가 내면의 심상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다.

이씨 작품들은 어느 특정 부위에 시선이 오래 머물게 만든다. 그리고 이후 여백과 꽃잎 등을 따라 화폭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

문의 062-221-18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소설가협, 29일 해남 문학기행

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전용호)가 문화와 역사의 고장 해남으로 문학기행을 떠난다.

오는 29일 작가들과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은 고정희 시인 생각과 김남주 시인 생각을 비롯 고산 윤선도의 고택 녹우당, 해남의 고찰 대흥사와 미항사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여진다. 이번 기행에는 해남 출신 김경윤(김남주기념사업회장) 시인이 동행해 해남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고정희 시인과 김남주 시인의 시와 삶을 해설할 예정이다.

출발은 오전 9시 5·18기념재단 주차장이며 참가비 1만원. 관광료·점심식사 제공. 문의 010-4137-446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KJB**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